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합 2:20)

주제: 제목 :하박국 2장 12-14절 성경: 만족의 조건

12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나라 (합2:12-14)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 우리가 항상 주일 낮 예배가 시작될 때 선포하는 말씀이다.
- 온 우주 구석구석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예배를 위한 장소는 어디든 더욱 거룩하며 신령한 곳이다.
- 예배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 드러지는 거룩한 시간이다.

-피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 본문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건축한다.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물질적인 압박을 이겨낼 길이 없어서 힘없는 자들을 괴롭힌다.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그런 길을 걸어왔다.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죄가 쌓여서 그렇고, 우리는 그 값을 치루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몇 십년 살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길다. 다만 내가 어느 순간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간은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

-누구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애를 쓰며, 죽은 후에도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죽기 전부터 애를 쓴다.

-인간은 이 세상의 만물의 법칙대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유독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며, 만족을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보람있는 삶을 추구하며,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많이 낙심하며, 실패하며,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많이 무산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복병도 많다. 사건 사고들, 나를 미워하며 음해하는 사람들, 경쟁자들, 복잡한 상황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안타까움들, 나 자신도 가늠하기 힘든 일들, 질병, 사회적인 구조적 모순들...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한가지 사실에서 파생되는 부작용들이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좀먹는게 아니라 심각하게 비틀어 놓는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비틀어진 채로 살아가면서 불편한 중에 애써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물론 이것은 운명이 아니다. 다만 이런 부작용들이 반복되어서는 않된다. 그 답이 14절에 있다.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것과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내가 역사의 한 순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나만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인정하게 된다.

-내가 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화를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다.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3:6)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외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이 죄인이며, 나도 역시 죄인이며, 그 증거로 내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예수의 생명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경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바른 길을 걷게 된다.

이 두려움만 온전하게 회복되도 (두려움이란 영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그는 기본적인 만족을 회복하게 된다.

두 번째는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의 목적은 계시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계시를 받지 못하고, 계시를 받아도 먹지 못하고,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고, 소화해도 행동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될 뿐이다.

온전한 겸손이 대부분의 불만이나 스트레스, 답답함, 고집스러움, 무식함 등을 해결해 준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교만한 모든 인생은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진실(지성)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숙제가 진실이다.

거짓이란 병산과 같다. 스스로가 자기를 가장 많이 속인다.

그래서 거짓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다.

사람의 진실도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진실한 만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이, 진실하지 않은 만큼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므로 진실한 만큼 그는 만족감을 얻게 된다.

열정(감동)

-열정은 만족의 꽃이다. 열정이 없이는 감동도 없다. 감동이 없이는 건강도 없다. 인생은 열심을 내는 만큼 감동스럽다.

-열정은 전파력이 있다. 열정은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이 가장 열정이 많으시며, 이 하나님의 열정에 콘센트를 꼽아야 한다. 하나님의 열정에 접목된 사람은 항상 만족하며 살아간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예수님의 아름다움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13:1-13)

참된 만족이 무엇일까?

그것은 최고의 맛을 경험할 때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최고의 맛을 내고 있는가?

당신의 사회적이며 외형적인 맛뿐만 아니라, 속 깊은 곳까지 맛이 배어 있는가?

당신의 맛은 진짜인가? 아니면 짝통인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자.

예수님의 맛을 내자.

사랑받는 자가 복이 더 있을까, 사랑하는 자가 복이 더 있을까?

당신은 사랑 받는 자인가, 사랑하는 자인가?

물론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것이 복되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복되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다고 성령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하지 말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사모하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라.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렇다면 아베마리아를 부르라.

<한글 번역>

Ave Maria! Jungfrau mild,

아베 마리아! 자비로우신 동정녀여,

Erhöre einer Jungfrau Flehen,

한 어린 소녀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Aus diesem Felsen starr und wild
단단하고 거친 이 바위에서
Soll mein Gebet zu dir hinwehen.
나의 기도가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Wir schlafen sicher bis zum Morgen,
우리는 아침까지 편안히 잠을 잡니다,
Ob Menschen noch so grausam sind.
사람들은 여전히 사납지만
O Jungfrau, sieh der Jungfrau Sorgen,
오, 동정녀여, 이 어린 소녀의 근심을 보소서,
O Mutter, hör ein bittend Kind!
오, 어머니여, 간청하는 한 아이를 들으소서!
Ave Maria!
아베 마리아!
Ave Maria! Unbefleckt!
아베 마리아! 때 묻지 않은 이여!
Wenn wir auf diesen Fels hinsinken
우리가 이 바위위에 쓰러져
Zum Schlaf, und uns dein Schutz bedeckt
잠을 청하고, 당신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덮을 때
Wird weich der harte Fels uns dünken.
그 단단한 바위가 (오리털같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Du lächelst, Rosendüfte wehen
당신이 미소지으면, 장미꽃향기가 날아 들어옵니다
In dieser dumpfen Felsenkluft,
이 습기차 곰팡내나는 바위의 갈라진 틈사이로,
O Mutter, höre Kindes Flehen,
오, 어머니여, 아이의 간청을 들으소서,
O Jungfrau, eine Jungfrau ruft!

오, 동정녀여, 한 어린 소녀가 울부짖습니다.

Ave Maria!

아베 마리아!

Ave Maria! Reine Magd!

아베 마리아! 순결한 소녀(성모 마리아)여!

Der Erde und der Luft Dämonen,

땅과 대기의 악마들은,

Von deines Auges Huld verjagt,

당신의 눈의 은총으로 부터 쫓겨납니다.

Sie können hier nicht bei uns wohnen,

그들은 여기 우리 곁에 살 수 없습니다.

Wir woll'n uns still dem Schicksal beugen,

우리는 그 운명에 조용히 고개숙이기 원합니다.

Da uns dein heil'ger Trost anweht;

그곳에 당신의 거룩한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Der Jungfrau wolle hold dich neigen,

동정녀 마리아께서 사랑을 품고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Dem Kind, das für den Vater fleht.

그 아버지를 위해 간청하는 아이에게

Ave Maria!

아베 마리아!

감사(지성)

자비(윤리)

사랑(영성)

기쁨(감동)

